제 3호

GNWFF

INFO_MAP

경남 청년 향후 결혼·출산 및 정주 의향

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
Gyeongsangnamdo Women & Family Foundation

발행처 |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| 발행일 2025년 10월 | 오지혜 연구위원 | www.gnwff.or.kr

01 전국 청년 결혼·출산 의향 분포[1)]

- 청년들의 결혼 의향은 전국 평균 63.1%로 대다수의 청년들이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. 17개 시도 중 광주가 75.0%로 가장 높고, 이어 강원 68.8%, 대전 66.7%, 서울 66.3% 등의 순으로 확인됨. 경남 청년의 결혼 의향은 60.4%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청년들의 결혼 의향이 낮음
- 청년들의 출산 의향은 전국 평균 59.3%로 결혼 의향보다 낮게 나타남. 17개 시도 중 광주 청년들의 출산 의향이 69.8%로 가장 높고, 이어 전북 64.1%, 경북 62.2%, 강원 61.9%, 서울 61.7% 등의 순으로 확인됨. 경남 청년의 출산 의향은 59.3%로 전국 평균과 동일하며 17개 시도 중 9번째로 확인됨

(단위: %)

구 분	결혼 의향	출산 의향
전국	63.1	59.3
서울	66.3	61.7
부산	60.2	57.6
대구	55.5	54.7
인천	62.8	58.7
광주	75.0	69.8
대전	66.7	61.0
울산	55.4	55.9
세종	61.1	61.6
경기	61.7	56.4
강원	68.8	61.9
충북	63.4	58.5
충남	60.4	58.1
전북	63.9	64.1
전남	59.8	58.8
경북	63.7	62.2
경남	**60.4**	**59.3**
제주	62.3	61.0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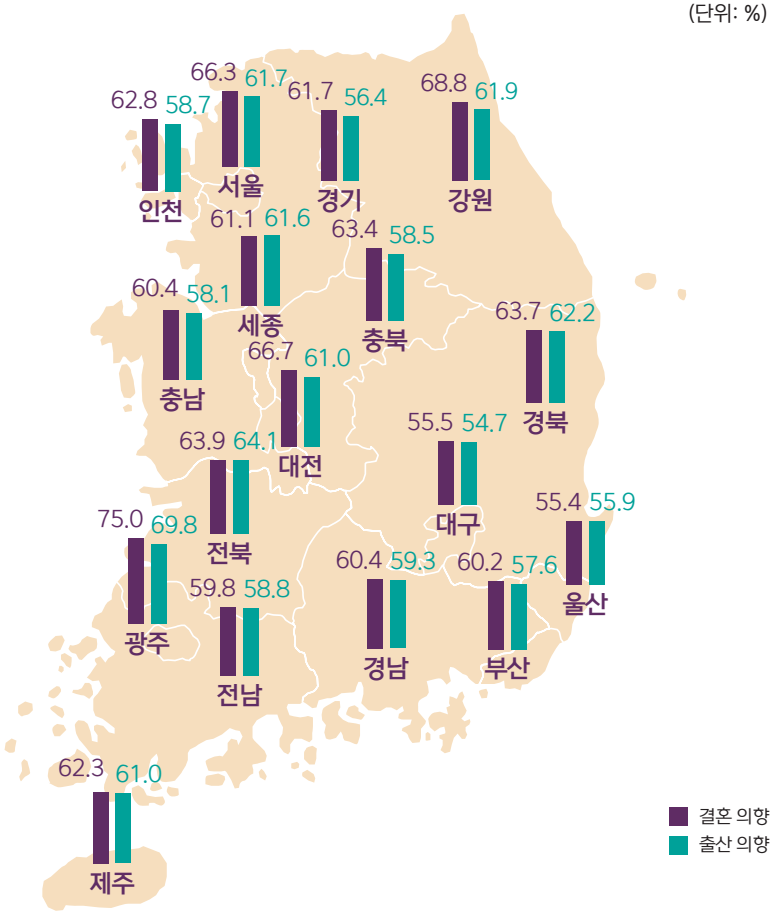


그림1 전국 시도별 청년 결혼·출산 의향 분포

1)통계청 [청년삶실태조사(2024년)]의 일부 문항을 활용함. 청년삶실태조사는 전국 청년 만19세~34세를 대상으로 8개 부문(일반, 주거, 건강, 교육·훈련, 노동, 관계참여, 사회인식·미래설계, 경제)에 관해 조사함

02 전국 청년 현 거주지 정주 의향[2)]

- 청년들의 현 거주지 정주 의향은 전국 평균 75.7%로 서울 청년들의 서울 정주 의향이 85.3%로 가장 높고, 이어 광주 83.0%, 대전 79.6%, 부산 78.8% 등의 순으로 확인됨. 경남 청년의 경남 정주 의향은 66.2%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나타나 청년들의 거주 의향이 매우 낮음

- 경남 청년들의 정주 의향을 18개 시군별로 살펴봤을 때, 산청군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정주 의향이 78.1%로 가장 높고, 이어 창원시 74.7%, 거창군 71.5%, 진주시 70.7% 등의 순으로 나타남. 한편, 창녕군 청년들의 정주 의향은 42.9%로 절반도 되지 않아 정주 의향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됨

(단위: %)

구 분	전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정주 의향	75.7	85.3	78.8	71.4	71.5	83.0	79.6	75.5	77.0	75.2	68.7	72.1	67.7	69.0	68.4	62.1	66.2	68.1
구 분	창원	진주	통영	사천	김해	밀양	거제	양산	의령	함안	창녕	고성	남해	하동	산청	함양	거창	합천
정주 의향	74.7	70.7	53.1	58.1	73.1	53.2	58.5	66.2	61.8	62.3	42.9	56.6	56.7	58.4	78.1	67.7	71.5	54.6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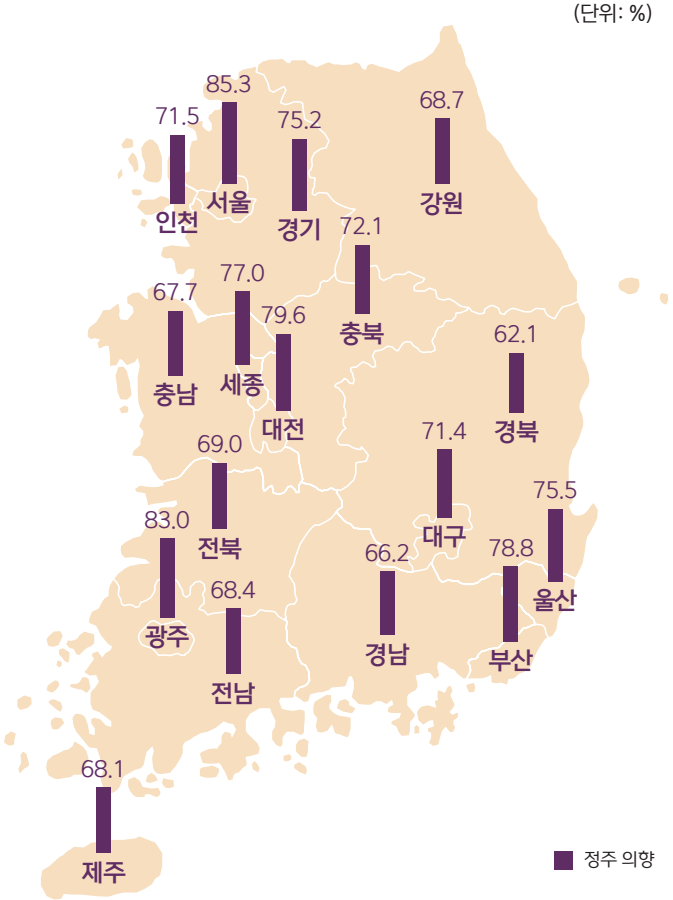


그림2 전국 시도별 청년 현 거주지 정주 의향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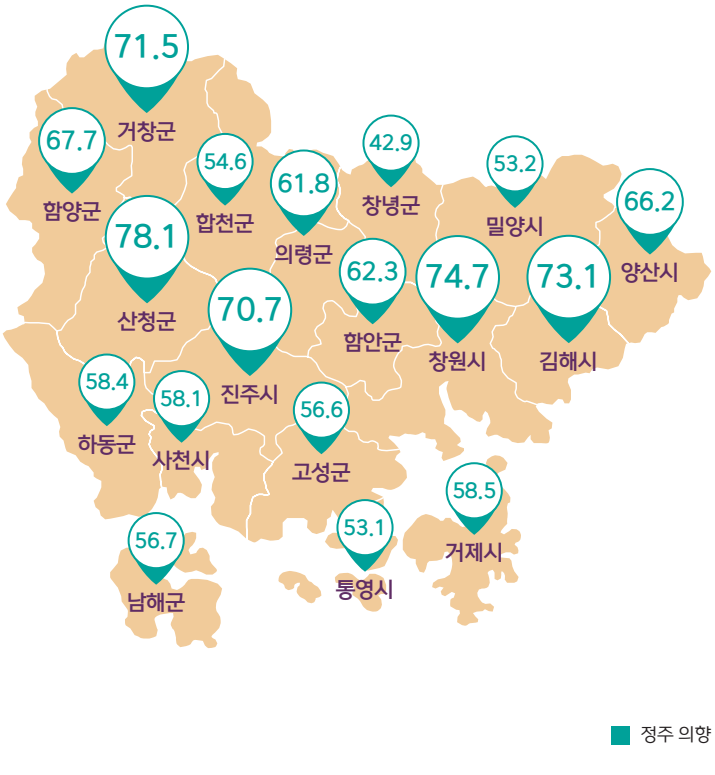


그림3 경남 시군별 청년 현 거주지 정주 의향

2)전국 17개 시도별 정주 의향은 통계청 [청년삶실태조사(2024년)] 문항을 활용하였고, 경남 18개 시군별 정주 의향은 경상남도 [사회조사(2024년)] 문항을 활용함. 경남 사회조사의 경우, 만 15세~39세까지의 응답자 중 '이주 계획'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임